

미즈카케 부동존

바위 위에 서 있는 석상은 오대명왕 가운데 한 사람이며 님나지 절이 속한 진언종의 중심적 존재인 부동명왕을 표현한 것입니다. 불교에 있어서 악마와 그 외 적에 대한 분노를 즉각 표출하기 위하여 오른손에는 검을, 왼손에는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부동명왕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 상에는 불꽃 모양 광배와 굳건한 바위 대좌가 있으며, 이들은 부동(不動, 움직이지 않음)의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미즈카케란 ‘물을 끼얹는다’라는 의미로서 수반 옆에는 참배하기 전에 상에 물을 끼얹기 위한 긴 국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

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상은 에도 시대(1603~1868년)의 어느 날, 범람한 교토의 강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 강에서 끌어올려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상은 님나지 절에 데려가주기를 바랐고, 용수 옆 바위 위에 안치되었습니다. 그 용수는 지금도 변함없이 상의 발밑으로 흘러 고이고 있습니다.